

# 쿠데타 성패, 푸미폰 국왕 손에...

## ■태국 무혈 쿠데타 이틀째

정치적 혼란상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태국에 군부 쿠데타까지 발생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19일 밤 쿠데타로 국정을 장악한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상·하원은 물론 내각과 헌법재판소를 해산했다. 헌법의 효력도 일시 중지시켰다. 군부가 국가 주요 기관을 완전 장악한 셈이다.

외견상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군부 쿠데타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추인 절차가 남아있다.

국민의 절대적인 충성과 존경을 받고 있는 푸미폰 국왕이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국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태국 정계의 분석이다.



19일 밤 전격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장악한 태국 군인들이 20일 방콕의 왕궁 앞 광장인 '로열플라자'를 지키고 있다. /AFP=연합뉴스

## 국왕 사전 승인설 나온다

쿠데타를 이끈 손티 분야랏글린 육군 총사령관은 국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군 수뇌부이기 때문이다. 손티 장군은 쿠데타 직후 국왕을 알현하고 새정부 구성에 대한 추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전에 국왕의 승인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손티 장군은 총리를 역임한 뒤 국왕의 최고자문기관의 의장을 맡고 있는 국왕의 최측근인 프렘 탄살라나다 장군의 계열인 것을 두고 하는 분석이다.

이런 쿠데타가 국왕의 추인을 받는다 해도 대대적인 숙정 작업이 펼쳐져 정국 혼란이 한층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정을 장악한 군부가 탁신계열로 구성된 내각 인사를 모두 사임시키고, 군부 내의 친 탁신 세력을 제거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 탁신세력 제거시 혼란 가중될 듯

관건은 군 쿠데타 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여부다. 군 쿠데타 세력이 국왕의 추인과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면 정국수습이 쉬워지고 정권의 민간이양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학생인 차나칸(18)은 "정국불안으로 가뜰이나 어려운 경제 기반이 흔들릴 것이 우려된다"며 "이왕 발생한 쿠데타라면 성공을 거둬 빠른 시일 내에 정국이 수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에서는 1932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9차례의 쿠데타와 쿠데타 기도 사건이 발생했다.

# 아베, 日 자민당 총재 당선

## 26일 총리 지명, 새 내각 발족

## 젊은 일본 표방·경제성장 역점

아베 신조(51) 관방장관이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제 21대 총재로 선출됐다.

아베 장관은 20일 실시된 총재 선거 투표에서 전체 703표(국회의원 403, 당원 300표) 가운데 464표(66%)를 얻어 경쟁 후보인 아소 다로(66) 외상과 다니가키 사타카즈(61) 재무상을 큰 표차로 물리치고 새 총재에 당선됐다.

아소 외상은 136표, 다니가키 재무상은 102표를 각각 얻는데 그쳤다. 1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이로써 아베 신임 총재는 오는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을 받고 곧바로 새 내각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국회의 총리 지명선거는 자민·공명 연합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총재 임기는 오는 2009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아베 총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뒤를 이어 제90대 총리에 오르면, 전후 최연소 총리이자 전후 출생한 첫 총리의 탄생을 알리게 된다.

아베 총재는 당선이 공표된 뒤 인사말을 통해 "전통있는 자민당의 전후에 태어난 첫 총재로서 이상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중단없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외조부가 기시 노부스케,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인 명문가의 세습 정치인인 아베 총재는 고이즈미 총리에 의해 일찌감치 후계자로 발탁돼 관방 부장관, 간사장, 간사장 대리, 관방장관을 차례로 역임하며 착실히 '총리 수업을' 받아왔다.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면서 일약 '총리감'으로 떠올라 1993년 중의원에 첫 당선된 뒤 13년 만에 집권당 총재에 올라 총리 자리를 예약했다.

'강한 일본' '아름다운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아베 총재는 전후 평화주의의 정신을 담아 교전권 등을 금지한 헌법의 전면 개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개혁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日 새 정부 출범, 한·일 갈등 해소 기대"

### 이규형 외교통상부 2차관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0일 일본의 새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이날 열리는 것과 관련, "정부는 일본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 양국관계의 갈등요인이 해소되고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공

동체 구축을 위한 우리의 파트너이자 소중한 이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부로서는 한일관계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로 발전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본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월남전 참전 명성...국왕 신임 각별

### 무혈 쿠데타 이끈 손티는



태국 쿠데타의 주역 손티 분야랏글린(59) 육군 총사령관은 불교 국가 태국의 군대를 이끄는 첫 이슬람교도이며,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티 장군은 전투 전문가로 19일 발생한 쿠데타에 이르는 과정에서 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탁신 치나왓 총리와 공개적으로 충돌해 왔다.

손티가 지난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이슬람교 소수자들이 사는 남부의 이슬람 폭동을 끝내려는 태국 정부의 움직임으로 관측되었는데 이슬람교도들은 이 나라 인구의 4%에 불과하다. 그는 2004년 1월 이래 1천400여명이 사망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슬람 시인군들과의 대화를 주창했으나 어떠한 협상 가능성도 무시하는 정부에 의해 좌절됐다.

손티 총사령관은 1969년 군사학원을 졸업해 왕립육군보병단에 배속되었으며 그후 특전사령부 등 주요 부대들을 이끌었다. 최근 들어 그는 태국의 정치적 교착 상태에 개입해 지난 1년 간 태국을 혼란에 빠뜨려온 위기에서 푸미폰 국왕의 비공식 목소리로 때때로 행동해 왔다.

## 자수성가한 CEO...돈 욕심이禍 자초



### 몰락 위기 탁신 총리는

19일 태국 군부의 쿠데타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한 탁신 치나왓 총리(57)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기업가 출신으로 태국에서 최초로 4년 임기를 다 채운 민선 총리.

뛰어난 사업 수완을 현실 정치에 접목시켜 태국 정치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의 독선적인 통치 스타일이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비난하고 있다.

1949년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비단 매매상의 아들로 태어난 탁신은 경찰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8년 타이 락 타이(태국인들은 태국인들을 사랑한다는 뜻)당을 창당, 2001년 총리에 취임한 그는 의료비 감면과 부채 탕감 정책 등으로 농촌 지역과 빈민층을 사로잡았다.

'CEO 총리'로 탄탄대로를 걷던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회사, 올 1월 그의 일가가 회사 주식을 싱가포르 국영기업에 19억달러에 팔아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국민들의 분노를 샀으며 사업 위기에 내몰렸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www.kukjapharm.co.kr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맡아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안과 일반의약품

**키블러 안약**  
안약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키블러 안약은 100% 천연 성분만을 사용하여 눈 건강을 도와줍니다.

**신도통 류스염약**  
신도통 류스염약은 류스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며,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타이름 류스염약**  
타이름 류스염약은 류스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며,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고객센터 문의: 080-022-2290 (주말 휴무) | 02-2290-2290

광고심의의뢰 : 878-0100

국제약품이 개발하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세계인은 사랑과 신뢰를 담은 제품을 만들어 드립니다.